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일시 (인터넷) 2026. 11. 16.(월) 11:00 (지면) 2026. 11. 17.(화) 조간 배포 2026. 11. 16.(월) 06:00

물고기의 생명 길인 어도(魚道)의 과거를 남기고 미래를 그린다

- '제8회 어도 사진·숏폼 공모전' 시상식 및 내수면 어도 관리 발전 토론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와 함께 11월 17일(화) 부산에서 '제8회 어도(魚道)* 사진·숏폼 공모전' 시상식과 '2026년 내수면 어도 관리 발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하천에 댐이나 보(洑)처럼 물의 흐름을 막는 인공 구조물이 있을 때, 물고기가 상류와 하류를 오갈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

해양수산부는 어도의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8년부터 어도 사진 공모전을 개최해 왔다. 올해의 경우 처음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숏폼 영상의 출품을 허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어도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사진 부문 대상에 이상일 씨의 '설원 속 생명의 물길' 과 숏폼 부문 최우수상에 김현준 씨의 '어도가 이어져야 할 이유'가 선정되었다. 수상작은 국가어도정보시스템 누리집(www.fishway.go.kr)을 통해 공개되고,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 등 상장과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향후 어도 홍보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상식에 이어서는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정부,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어도 관리 관계기관과 어도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2026년 내수면 어도관리 발전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어도정보시스템의 활용 방안과 부처별 어도 조사·평가 방법의 개선 방안, 인공지능(AI) 기반 어류 탐지 기술, 하천 연결성 강화를 위한 어도 관리 전략 등을 발표한다. 이어 종합 토의를 통해 어도의 기능 개선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어도의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어도의 기능을 개선하고, 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책임자	과 장	강희정 (051-773-5630)
		담당자	서기관	장석준 (051-773-563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자유이용

참 고 **제8회 어도사진 · 숏폼 공모전 대상 및 최우수상**



<사진 부문 대상> 설원 속 생명의 물길(전북 정읍시, 동진강)



<사진 부문 최우수상> 아래동네 윗동네
(전남광주 순천시, 이사천)



<사진 부문 최우수상> 생명의 물길, 자연을 잇다
(전북 정읍시, 동곡천)



<숏폼 부문 최우수상> 어도가 이어져야 할 이유(충남 금산군, 유등천)